

# 14세기 원 건축의 영향과 고려의 수용

## The Architectural Influence from the Yuan Dynasty and the Acceptance of Goryeo Dynasty in the 14th Century

홍 병 화\*

Hong, Byung-Hwa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 Abstract

The architectural influence from the Yuan had impact on the Goryeo Dynasty in earnest during Yuan intervention period in the 14th century. The representative example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Yuan architecture are the Eungjinjeon in Seongbulsal(成佛寺) temple, the ten-story stone pagoda of Gyeongcheonsa(敬天寺) temple site, the Bogwangjeon in Simwonsa(心源寺) temple, the Hoeamsa(檜巖寺) temple and so on. Notwithstanding the changes of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it can be comprehended that there was a selective acceptance of the Yuan architectural peculiarities in Goryeo Dynasty. It means that the adoption of foreign culture in Korea has not been inevitable from the unilateral demand, but been autonomous by perceiving as the advanced culture. This tendency was maintained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d been changed.

주제어 : 14세기, 원간섭기, 성불사 극락전, 성불사 응진전, 경천사탑, 심원사 보광전, 회암사

Keywords : 14th Century, Period of Yuan's intervention, Geukrakjeon in Seongbulsal temple, Eungjinjeon in Seongbulsal temple, Stupa of Gyeongcheonsa temple, Bogwangjeon in Simwonsa temple, Hoeamsa temple

### 1. 서론

원간섭기는 오랜 항몽의 결과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시작된 예속의 시기를 의미한다. 원간섭기에는 원의 문화가 고려에 많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건축역사학의 입장에서는 원 다포건축의 영향일 것이다. 다포건축이 원에서 기원했다는 일제강점기의 주장은 부정되었지만, 원으로부터 받은 건축문화의 영향이 컸다는 사실까지 부정할 수는 없다.

이번 연구는 원간섭기가 비교적 안정되기 시작한 14세기 양국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원으로부터 고려가 건축문화를 받아들인 추이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원 건축의 영향을 고려가 어떻게 수용하는지 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고려의 건축 현상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이다.

우선 당시 두 나라 간의 교류와 시대적 배경을 파악

한 뒤에 실제 현존하는 14세기 고려 건축의 사례를 관찰하여 원의 영향은 물론 그 영향에 고려의 수용 추이와 태도를 파악하고 의미까지 짚어보고자 한다.

### 2. 원간섭기 麗元(고려와 원)관계

원은 고려를 비롯하여 남송을 점령한 후에 두 나라에 자치권을 폭넓게 인정하였으며, 14세기 초반 고려의 충선왕은 원 황실 내의 권력투쟁에서 공을 세워 원에서조차 실권자로 통했다. 물론, 충선왕 개인의 지위와 고려의 지위를 동일시할 수는 없지만, 고려에 상대적 자율성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충선왕은 원의 수도에 萬卷堂을 세워 고려와 원의 지식인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에서도 여원관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물론 여원관계의 본질은 고려의 왕은 원과 혼혈이며, 원은 세계적 제국이라는 현실에 규정 받은 결과이지 결

\* Corresponding Author : dopyunsoo@hanmail.net

## 8 논문

코 상호 존중의 결과는 아닐 것이다.

고려는 원이 구축한 국제질서에 강제적으로 편입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고려 입장에서는 중원의 문화를 좀 더 쉽게 접하는 환경이 갖추어진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타의에 의해 펼쳐진 시대적 상황에서 고려의 유력한 지식인층이라 할 수 있는 승려나 신진사류는 원의 문화를 선진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대표적인 문화적 교류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교류인데, 원은 1276년 중국의 남쪽을 점령하면서 남송의 五山十刹이라는 국가불교체제와 여기서 성행하고 있는 임제종의 간화선을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다.<sup>1)</sup>

자연스럽게 고려도 원을 통해 남송에서 유행하고 있는 임제종의 간화선을 접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이미 고려에는 지눌(1158~1210)이 수선결사 당시 간화선을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부감 없이 남송 지역에서 성행하는 임제종의 간화선을 수용하게 되었다.

고려의 불교계는 13세기 말부터 본격적으로 남중국을 찾아 남송의 고승들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었는데, 깨달은 뒤에 고승을 찾아가 자신이 깨달았음을 인정받는 悟後印可의 유행으로 남중국 임제종 고승을 찾아가는 것을 당연시하게 되다시피 한다. 이러한 유행은 元明교체기에 접어드는 1360년대 후반경까지 계속된다.<sup>2)</sup>

이외에도 蒙山德異(1231~1308)의 제자인 鐵山紹瓊(?~1311)이 1304년부터 3년간 환대받으며 고려를 방문하였고, 인도의 승려 指空禪賢(1300~1361)도 남중국을 거쳐 1326년 고려에 들어온다.<sup>3)</sup> 이처럼 남송의 간화선은 원 남벌 이후부터 한동안 고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등, 두 나라의 불교계 임제종을 중심으로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어 결국에는 고려의 주요 사찰이 원 황실의 원찰이 되는 사례가 많아지게 된다.<sup>4)</sup>

1) 남송의 오산십찰이란 황실과 밀착된 국가불교체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원이 남벌한 이후도 오산십찰제가 유지되었다고 한다. 황실은 사찰을 지원하고 사찰은 황제를 축원하는 權敎유착의 상징이라 볼 수 있다.

2) 14세기 전반기 원의 임제종을 구별하는 과정과 의의에 대해 불교사학계는 이미 상당한 연구 성과를 축적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통해 그 대강을 파악하였다. 최연식,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 보조사상, 37집, 2012; 조명제, 「고려말 원대 간화선 수용과 그 사상적 영향」, 보조사상, 23집, 2005; 강호선, 「충렬·충선왕대 임제종 수용과 고려불교의 변화」, 한국사론, 45집, 2001

3) 몽산덕이는 당시 고려의 승려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인물이었으며, 지공선현은 나옹혜근의 스승 중 한 명이다. 두 인물 모두 14세기 고려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임제종 승려이다.

4) 윤기엽, 「원간섭기 원황실의 원당이 된 고려사원」, 대동문화연구, 46집, 2004; 윤기엽, 「원간섭기 원황실의 보시를 통해 중흥된 고려사원」, 보조사상, 22집, 2004

특히 원 順帝(재위: 1333~1368)가 등극하고 잇달아 기황후가 등장하면서 고려와의 관계가 훨씬 더 밀착되는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고려 불교에 대한 원 황실의 영향력은 한층 강화되었다.<sup>5)</sup> 당시 원은 남중국의 임제종만이 아니라 티베트의 라마 불교까지도 모두 중시하였으며, 결국에는 라마 승려까지 고려에 오게 된다.

순제의 집권 후반부에는 황실 내부의 정치적 혼란과 이를 틈탄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치, 그리고 원명교체기의 혼란까지 이어지면서 원의 고려에 대한 영향력은 이전과 다르게 약화된다. 이후 明에 수도를 빼앗긴 원은 北元으로 위축되면서 여원관계는 단절되고, 이후 관계가 일시적으로 회복되기도 하였지만 원이 기울어가는 대세는 변하지 않는다.<sup>6)</sup>

공민왕대의 고려 불교계는 원 유학파인 태고보우(1301~1382), 나옹혜근(1320~1376), 백운경한(1299~1374), 설산천회(?~?)와 같은 승려들이 왕사와 국사를 역임하였고, 권문세족과 연결된 기득권적 불교세력과의 대립을 통해서 불교계의 개혁을 이끌었는데,<sup>7)</sup> 원으로 유학을 갔다 왔다는 명성을 얻어야만 고려에서 행세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고려에는 선종만이 아니라 화엄종 승려조차 원으로 유학을 다녀왔던 것이다.<sup>8)</sup>

성리학도 본격적으로 고려에 들어온 것은 안향(1243~1306)으로부터 시작하여 백이정(1247~1323), 이곡(1298~1351), 이제현(1287~1367)으로 이어지는 유학자들에 의해서였다. 남송의 朱熹(1130~1200)에 의해 집대성된 신유학이기 때문에 원의 남벌과 함께 본격적으로 수용되었다. 원은 불교와 마찬가지로 성리학도 우대하였는데, 간화선과 마찬가지로 남송으로부터 고려에 유입되었다.<sup>9)</sup>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수용한 학자들의 친불교적 성향을 보면 분명히 불교와 성리학은 각각 修身과 治國이라는

5) 토니노 푸지오니, 「원대 기황후의 불교지원과 그 정치적인 의의」, 보조사상, 17집, 2002, 95~183쪽

6) 복원이란 1368년 明에게 북경을 내주고 북쪽으로 물러난 몽골 왕조를 말한다. 20년간 서서히 세력이 위축되어 국호를 원에서 타타르로 바꾸게 된다.

7) 태고보우는 1346년에 入元하여 1348년에 귀국한다. 설산천회는 1364년 가을에 배편으로 입원하여 1366년 7월에 귀국한다. 나옹혜근은 1348년 입원하여 1358년 귀국한다. 백운경한은 1351년 입원하여 1352년 귀국한다.

8) 설산천회는 화엄종 승려임에도 다른 선종계 승려처럼 남중국의 임제종 승려에게 인가를 받고 돌아온다. 유학 기간도 최소화하여 도착하자마자 인가를 받고 그대로 돌아왔다고 볼 정도로 기획된 유학이라는 인상이 강하다. 이것은 당시 원의 임제종에 기대는 고려 불교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9) 조명제, 「14세기 고려 지식인의 입원과 순례」, 역사와 경계, 69집, 2008

역할분담을 통해 공존하는 관계였다.<sup>10)</sup> 이러한 우호적인 입장은 중국과 고려의 독서층이라 할 수 있는 유학자들이 사찰을 書齋로 이용하는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와 유교의 관계는 정서적으로 매우 가깝다.<sup>11)</sup>

특히 이 시기에는 고려의 유학자들은 원의 과거시험에서 登科하여 원의 수도에서 관리를 지내는 것을 성공이라고 보고 있었다. 이는 마치 원에 유학하여 유명 입제종 승려에게 인가를 받고 돌아와야 고려에서 인정을 받는 불교의 풍조와 같은 것이다.

이처럼 당시 지식인층이라고 할 수 있는 승려와 신진사류는 모두 원의 문화적 영향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고려가 원에 대한 문화를 수용하는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 3. 기황후와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치

고려의 대청도까지 귀양을 온 원의 태자가 나중에 順帝로 등극하고, 공녀로 원에 들어가 결국 황후에까지 오른 기황후를 통해 좀 더 밀착된 여원관계가 형성된다. 기황후는 실권을 장악하면서 고려의 사찰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고려 내에서는 왕을 능가하는 영향력을 가진 부원세력이 성장한다.

기황후시대에는 금강산 사찰에 직접 원의 기술자를 파견하여 종을 만들고 돌아오는 길에 개성 연복사에 들러 종을 만들었고,<sup>12)</sup> 원 황실의 원찰인 경천사에도 원의 승상과 고려 출신의 환관이 발원하여 탑을 조영하였으며,<sup>13)</sup> 마곡사에는 라마식 상륜을 만들어 5층 석탑에 얹는 등 직접적으로 고려 사찰을 후원한 흔적은 지금도 많이 남아 있다.

이 시기에는 원 황실이 부원배를 앞세워 고려 사찰에 대한 영향력은 직접적이고도 엄청났으며, 이에 대응하는 고려 사찰의 노력이 어느 정도였을지 쉽게 추정해 볼 수 있다.<sup>14)</sup> 이렇게 기황후를 중심으로 밀착된 여원관계

는 고려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1356년 공민왕이 원을 대상으로 취한 일련의 조치를 ‘반원자주정치’라고 부르는데, 이는 영토 회복과 고려 조정 내의 附元세력을 축출하는 것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정치적 행동을 말한다. 공민왕은 이 시기 태고보우, 나옹해근, 백운경한 등 麗末三和尚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개혁하고자 하였으며, 신돈을 통해 신진사대부를 등용하여 중앙정계를 재편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치는 신진사대부와 함께 구세력이라 통칭되는 부원세력과 기득권적 불교세력에 대한 투쟁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의 여원관계사에 관한 연구 성과를 보면 이러한 공민왕의 정치를 자주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이견이 제기되고 있다.<sup>15)</sup>

왜냐하면, 1356년 수 개월간 행해진 반원적 행동 후에도 지속적으로 원의 연호를 사용하고 원에 문서를 보내 고려가 취한 정치적 행동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을 ‘독립운동’이라기보다는 부원배를 척결하여 지나친 내정간섭으로 왜곡된 여원관계를 이전상태로 되돌리려는 정치적 행동 정도로 인식해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sup>16)</sup> 그렇기 때문에 자주정치 이후에도 원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렇듯 14세기는 기황후의 등장을 통해 밀접해진 여원관계가 공민왕의 부원세력 척결을 통해 파동을 겪고 원명교체기에 접어들면서 급격히 약해졌을 것이다. 이후 원명 간의 대륙항배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려는 중립적 위치를 고수하기도 하였지만, 결국 중원의 패권을 명이 장악하면서 여원관계는 끝장이 난다고 할 수 있다.

### 4. 원 영향을 받은 고려건축

14세기는 1356년 반원자주정치에서 원명교체기로 이어지는 시기에 접어들기까지 다양한 갈등이 여원 간에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원이 구축한 질서 하에서 전폭적인 교류가 가능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현존하는 원의 영향을 받은 건축을 관찰하는 것은 당시 여원관계 속에서 건축문화의 상호교류를 파악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10) 남동신, 「목은 이색과 불교 승려의 시문 교류», 역사와 현실, 62집, 2006

11) 황인규, 「고려시대 유생의 서재와 그 문화」, 한국교육사학, 28권, 2호, 2006, 183~189쪽

12) 이곡, 「演福寺新鑄鍾銘并序」, 『동문선』, 권49, 銘

13) 『신증동국여지승람』, 권13, 풍덕군 불우조 경천사

14) 반대로, 고려인이 원의 수도에 사찰을 조영하였다는 기록을 찾아 볼 수 있다. 이것은 1343년 ‘천태법왕사’를 짓고 경위를 기록한 것인데, 당시 여원 간의 불사가 일방적이지 않았음을 잘 알 수 있는 기록이다. 천태법왕사는 사명으로 보아 천태종 사찰임을 알 수 있다. 고려 출신으로 원의 환관이나 공녀로 시작하여 원 내부의 실권자로 자리 잡은 인물들도 많아 원에도 고려인에 의한 불사가 많았다고 한다.

15)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집, 2009

16) 이익주, 「1356년 공민왕 반원정치 재론」, 역사학보, 225집, 2015

4-1. 성불사 응진전

성불사에는 14세기 건축으로 인정되는 두 동의 건물이 남아 있었는데, 그중 하나인 극락전은 조선전기 앞쪽의 퇴칸이 확장되었다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으며, 다른 하나인 응진전은 조선 전기에 중창되어 전해지는 건물이라고 한다.

자세히 살펴보면 극락전은 1320년대 초 혹은 1374년, 응진전은 1327년에 초창이라는 창건 시기를 가지고 있다.<sup>17)</sup> 극락전은 창건 이후 어떤 이후에서든지 16세기경 앞쪽으로 한 칸을 달아내었으며, 응진전은 1327년 창건되고 나서 1530년에는 중창을 거쳐 현재의 모습으로 남아 있다고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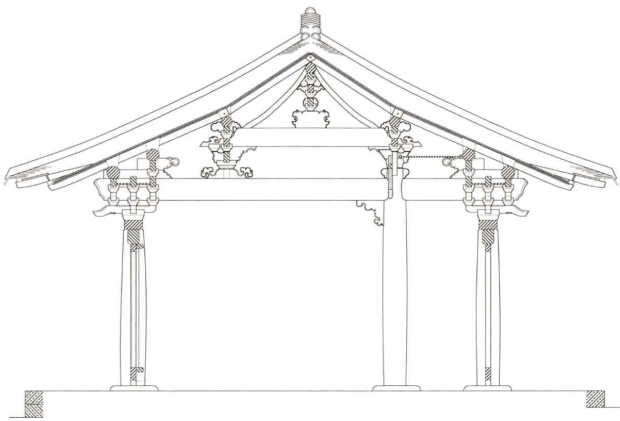


그림 1. 성불사 응진전 단면도 (국립문화재연구소)

이 중에 관심을 가져야 것은 응진전의 건축형식이다.

응진전은 지붕가구에서 옆에 있는 극락전과 함께 장식성 뛰어난 전형적인 고려시대 주심포 건축으로 창건되었지만 1530년에 다포식으로 변했다고 알려져 있는 건물이다.

17) 극락전의 경우 막새의 명문에서 至治라는 연호가 발견되어 1321년에서 1324년 사이에 창건되었다고 하는 주장과 1374년 창건되었다는 주장이 있다. 헛침차 주심포 건축 중 수덕사 대웅전, 성불사 응진전 등과 유사하지만, 거조암 영산전 등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둘 중 어느 주장이 옳든 극락전은 14세기 양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응진전은 직접 수리한 일본인 오가와[小川敬吉]에 의해 편년에 대한 견해가 발표된 적이 있다. 그는 1935년 수리공사에서 발견한 몇 종류의 목서명을 통해 응진전은 1327년 창건되었으며, 1530년 수리하였다는 것을 ‘銘文과 實物’을 통해 입증하게 되었다고 적고 있다.

여기서 수리된 부재들을 대체적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때 공포도 평주 위에 있는 공포와 중도리를 지지하는 공포(포대공)가 서로 다르다고 했다. 평주 위는 사철된 주두를 사용하고 있고 포대공에는 주두의 굽이 안으로 굽고 굽받침이 있는 주두를 사용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그래서 평주 위의 공포는 1530년에 수리되었다는 논지를 펴고 있다. 주두의 굽이 굽었는지 여부를 가지고 고려(주심포)와 조선(다포)을 구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원대의 모든 건물에서 주두의 굽은 굽지 않았으며, 굽받침도 없다. 심원사 보광전도 마찬가지이다. 즉, 여기서는 굽이 굽었는지의 여부는 시기의 차이가 아니라 원대 다포냐, 고려시대 주심포냐의 기준이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인다.(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한국문화재보존고: 일경기자료집성 1』, 1992, 118~12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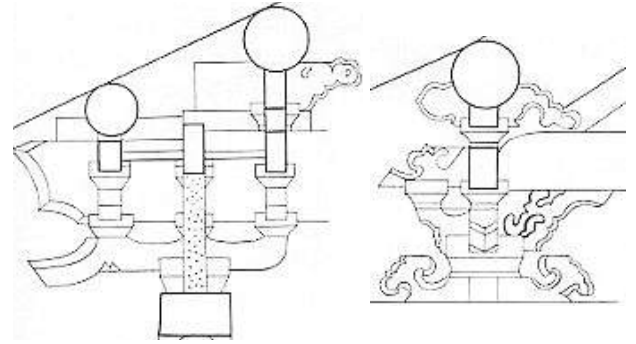


그림 2. 성불사 응진전의 공포와 포동자주

그러나 주심포식으로 창건되어 지금의 응진전처럼 다포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우선 평방이 생겨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평주를 평방의 높이만큼 잘라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고주와 평주 간에 연결되는 수평부재들이 결구되는 수평재의 장부구멍을 짧아진 기둥으로 기울게 설치되는 일이 없게 일일이 다시 파내야 한다. 만약 실제로 주심포에서 다포로 바뀌었다고 한다면 재사용되는 기둥은 하나도 없이 모두 교체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렇다면 합리적인 추정은 단연 창건 때부터 이러한 모습을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미 소슬합장과 대공, 동자주와 같이 지붕가구에서 이 건물은 옆에 있는 극락전은 물론, 수덕사 대웅전과 비교하여 동시대 특징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어 세 건물을 동시대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sup>18)</sup>

그렇다면 문제가 될 부분은 다포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假昂이다. 이 부분은 마치 16세기 중반에 지어진 청평사 극락전의 가양과 매우 유사한 형태를 하고 있어 주두와 소로의 모양과 함께 이 건물이 1530년의 중수를 통해 다포로 바뀌었다는 조사기록을 신뢰하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미 중국에는 平昂이라고 하여 가양이 비스듬히 아래로 뺀 형태가 아니라 끝을 앞으로 뺀 가양이 확인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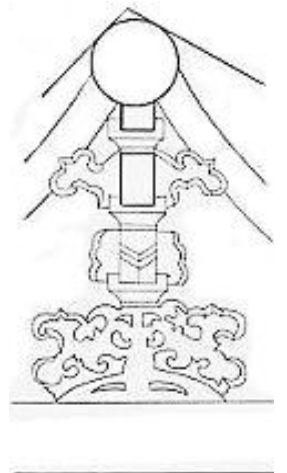


그림 3. 성불사 응진전 대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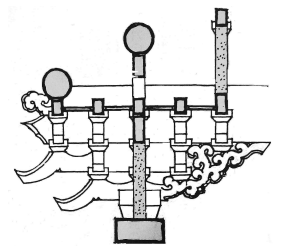


그림 4. 청평사 극락전 공포

18) 류성룡·주남철, 「고려시대 대공의 결구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권, 6호, 2003 참조.

기도 한다.<sup>19)</sup> 우리나라에서는 원 건축의 가양과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는 봉정사 극락전 단집의 가양도 비슷해 보이기는 앞으로 뺀 평양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성불사 응진전이 평양을 하고 있는 사례라고 말하기에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다. 하지만, 1530년의 중수에서 다포로 바뀌었다고 주장하기에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해명해야 할 내용이 더 많아 보인다.

#### 4-2. 경천사석탑

경천사탑은 원의 장인이 직접 만들었다고 전하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의 내용을 근거로 이 탑에 표현된 건축수법이 당시 원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해되어 왔다. 하지만 실제 석탑의 명문에는 원 황실의 태자와 황후의 만세를 기원하는 내용과 원의 승상 탈탈과 고려 출신 환관 고훈보의 발원에 의해 1348년에 조성되었다는 기록만 전한다.



그림 5. 경천사와 원각사석탑

최근의 연구에서 원 장인이 직접 와서 탑을 만들었다는 기록을 부정하는 연구결과가 제기되었으며, 경천사탑에는 송과 요의 특징과 함께 부조된 불상에는 고려 양식까지 보인다고 한다.<sup>20)</sup>

또한 이러한 조형성을 보이는 석탑은 당시 원과 고려 어디에도 없었으며, 이후로도 원각사와 연경사에서만 확인되는 정도이다.<sup>21)</sup>

19) 중국에서는 평양이라 하여 1179년에 재건된 것으로 알려진 현묘관 삼청전을 비롯한 여러 건물에서 평양을 쓰고 있다. 다만, 원의 다포에서는 평양을 쓴 사례를 발견하지 못했다.

20) 신은정, 「경천사지심층석탑의 조형 연구」, 불교미술사학, 4집, 2006, 317~339쪽

21) 고유섭 선생에 의해 연경사에도 이와 같은 탑이 1기 더 있었다는 조사가 있었으며, 이 탑은 흥교원에서 옮겨온 것이라고 한다. 현재는 국립박물관에 석재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한다.(신은정, 앞의 논

경천사탑이 원 장인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확신은 부조상에서 고려 양식이 엿보인다는 점에서 가질 수 없다. 이러한 특징은 적어도 원과 고려의 공동 작업이라는 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경천사탑의 경우 원의 영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만, 중원 문화의 종합적 수렴과 고려 문화의 융섭이 가장 적극적으로 표현된 건축이라는 점과 적어도 15세기 말까지는 재현하고 싶은 조형물이었던 것으로 보아 창의적이며 탁월한 작품이라는 인식이 당시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 4-3. 회암사

회암사의 증창은 남송의 오산심찰제에 대한 수용이라는 연구가 국내에서 제기되었다.<sup>22)</sup> 이러한 연구결과는 놀라운 것으로 회암사를 선종사찰의 전형으로 이해할 여지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선종의 수용은 이미 통일신라시대부터 이어진 것으로 회암사를 제외하고는 남중국 임제종 사찰과 공통점보다는 차별성이 더 눈에 띄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고려에서 선종은 결사를 통해 대중적 동력을 얻었으며, 원간섭기에도 주요한 불교 종파로 기능하고 있었는데, 항몽기와는 다르게 원간섭기에는 고려 지배층에 기대어 재정적 후원을 받는 식의 변질이 있었다는 평가가 보통이다.

이미 14세기는 전국적으로 요지에는 모두 사찰이 들어선 상태로 새로운 사찰이 필요하더라도 창건보다는 기존 사찰을 증창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사찰의 틀을 유지하면서 필요한 공간을 확장하거나 교체하는 식으로 증창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회암사의 증창은 보통의 사찰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임제종 사찰의 구현이라는 고려에는 전혀 없는 사찰을 구현하는 것이다. 최근 완료된 발굴조사가 이러한 주장을 고고학적으로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증창 이전의 회암사는 증창된 회암사와 완전히 다른 사찰이 되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3세기 후반이나 14세기 전반에 증창을 한 개성의 개국율사, 사리원 성불사, 15세기 중반의 관음현상을 표현한 상원사 등과 같이 전형적인 고려 후기의 사찰과 회암사는 큰 차이가 있다.

문에서 재인용)

22) 한지만, 「회암사지 고원 영역의 전각 배치에 대하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0권, 7호, 2014; 한지만, 「회암사지 일자형 건물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권, 2호, 2010;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 6호,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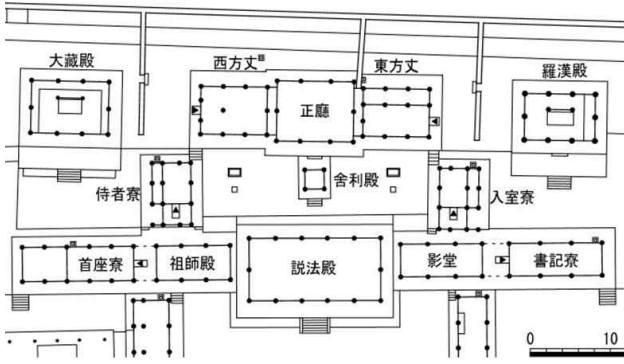


그림 6. 회암사 설법전과 정청 영역 (한지만)

즉, 회암사의 배치는 기존의 회암사를 중창하면서 갖춰졌지만 창건하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사찰을 일거에 지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때 구현한 공간이 원을 통해 빈번하게 교류한 임제종의 사찰공간을 그대로 옮겨오듯 재현한 것이라 특이하다.

그리고 1372년 왕사로 임명된 나옹혜근이 중창을 시작하자마자 귀향을 떠나면서 암살되었음에도 다시 그의 문도들을 통해 중창이 지속되어 1376년 낙성을 이룬다.

4-4. 심원사 보광전

이 건물은 우리나라 다포식 건축의 시작으로 인정받고 있는 건물이다. 물론, 이전에도 우리에게 이와 다른 형식의 다포건축이 있었다는 것은 다양한 사례를 들어 확인되었다.

하지만 원의 영향을 받은 다포식 건축이 이후 주류 건축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영향이 조선 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현실을 볼 때 심원사 보광전이 차지하는 건축역사상의 위치는 의미가 있다. 목은 이색에 의해 원에서 들어온 건축이라는 견해가 있지만, 실제 지어진 시기와 이색이 원을 다니던 시점에서 큰 차이가 있어 신뢰할 수는 없다.<sup>2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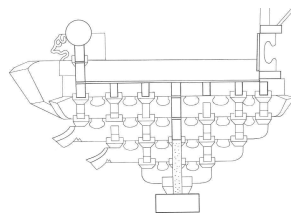


그림 7. 심원사 보광전 공포

23) 건물이 1374년에 창건되었다는 것이 현재 자료로 확인되는 것은 아니며, 목은 이색(1328~1396)이 원에 다녀오는 길에 건물의 쇠락함을 보고 수리를 권유하였다는 정도의 내용이 전한다. 이는 1709년에 세워진 사적비에 기록된 내용이다. 하지만 이색은 원을 총 4차례 왕래하였으며, 최종 귀국은 1356년이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사신으로 다녀오는 길에 심원사에 들러 수리를 권했다는 말은 믿기 힘들다. 다만, 목은이 고려 말 불교기문 짓는 일을 가장 많이 한 점, 1374년이라고 창건시기를 특정한 점과 건물 양식이 일치하는 것을 볼 때, 1374년에 창건된 이 건물의 중수기를 이색이 적었을 것이다. 당시 심원사는 수도인 개성의 인근 사찰로 상당한 격을 갖춘 사찰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모리히라 마사히코, 「목은 이색의 두 가지 入元 루트」, 진단학보, 114집, 2012; 이 논문에서 목은 이색의 마지막 귀국은 원에서 벼슬을

우리나라 다포건축에서 심원사 보광전의 건축적 영향을 살펴보면 심원사 보광전이 차지하는 의미를 좀 더 확연하게 느낄 수 있다.

전형적인 삼분두와 가양, 살미와 첨차의 조각 등은 원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sup>24)</sup> 외형상 두드러지는 이와 같은 특징은 이후에 지어진 다포식 건축에 줄곧 표현된다. 물론, 심원사 보광전 이전의 다포식 건축에 대해서는 몇몇 간접적 자료들을 통해 어느 정도 실체를 파악할 수 있지만 심원사 보광전과는 판이하다.<sup>25)</sup>

심원사 보광전과 이에 영향을 준 건축의 원형이라고 생각되는 원의 영락궁 삼청전(1262)과 광승상사 미타전(元代) 등의 건축들과 비교해도 눈에 띄는 차이는 발견된다. 추녀를 구성하는 방법의 차이, 권좌의 사용 여부, 외목도리를 고정하는 안초공의 사용 여부, 벽체의 구성 등은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원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진 심원사 보광전조차 구체적 구성 수법에 대해서는 원 건축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원 건축과 심원사 보광전 간의 공통점은 원의 요소, 차이점은 고려의 요소라는 구분이 가능하다.

5. 14세기 원 건축의 수용 양상

원간섭기 고려는 원을 통해 임제종의 간화선과 성리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원 건축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받아들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분명한 것은 임제종의 간화선이 수입된다고 해서 임제종 사찰건축이 그대로 수용되는 것은 아니다. 즉, 임제종의 수행법을 배워온다고 해서 공간의 구성과 사용까지 그대로 우리 사찰에 수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원 건축을 수용한 고려의 사찰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성불사의 상황을 파악해 본다면, 성불사는 14세기에 창건된 것이 분명한 극락전과 응진전이 각각 사동중정형 배치의 북변과 동변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응진전은 대공과 동자주의 수법이 옆에 있는 놓고 귀국한 1356년으로 보고 있다)

24) 가양은 안쪽에 은출화두자, 출목 사이의 공간, 살미와 첨차의 교차 지점에 공간과 함께 형성되는 은출심두 등의 장식, 가양(금면양) 마구리인 오각형 양취 등이다.

25) 봉정사 극락전의 단집에 표현된 건축은 장식을 목적으로 한 小建築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주 발달한 다포식 건축을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가양과 권좌, 영침 등의 수법은 확인할 수 있지만 원 건축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고려시대 다포가 이와 같다고 보기에는 설부른 면이 있다.



극락전은 물론 대표적인 고려시대 주심포 건축인 수덕사 대웅전과도 흡사하다. 이러한 공통점은 이 세 건물이 시기가 비슷한 같은 계통의 건축이라는 근거가 된다.<sup>26)</sup> 거기에다 응진전은 1530년 중창과정에서 다포식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일제강점기 응진전을 수리한 日人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하지만 응진전은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중창을 통해 변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현재의 모습으로 지어졌다고 보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판단이다. 다만, 공포와 가구의 수법을 고려해 볼 때, 고려시대 주심포를 바탕으로 원의 다포건축에 영향을 더해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경천사탑의 경우 형태나 표현, 부조된 조각의 내용과 도상 등을 볼 때 송·요·고려의 특징이 모두 반영된 석탑으로 독창적이면서도 절충적인 석탑이다. 고려에서 이 석탑은 당대는 물론 조선 초기까지는 훌륭한 건축으로 인정되었던 것이 분명하다.

회암사가 중창되고 심원사 보광전이 지어지던 시점부터는 좀 더 특별한 관점에서 원 건축의 영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당시는 원명교체기 원의 영향력이 극도로 미약해지고 고려·원·명 간의 세력균형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시점은 고려가 다시 北元의 연호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이전에 원 연호를 사용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균형외교 차원에서 일시적으로 취한 정치적인 행동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sup>27)</sup>

물론, 원이 북원으로 위축되었다고 해도 원의 위력에 대한 두려운 기억과 아무리 한족이라고 해도 명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고려는 두 나라 사이에서 균형을 잃지 않으려 했을 것이다. 그리고 원은 중원을 장악하고 나서 중원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였기 때문에 원의 건축문화로 알려진 것은 원이 수용한 중원의 문화인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1374년 심원사 보광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원의 건축이 사용된 점에 대해 이해의 여지가 생긴다. 즉, 원의 영향이라고는 하지만 전적으로 모사하듯 짓지는 않았으며, 원의 문화라는 것이 중원의 문화라는 입장에서 보자면 여원관계가 느슨해진 이후에 심원사 보광

전이 지어진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후 회암사 중창에서는 이러한 심원사 보광전의 경우와도 다르게 남중국 임제종 사찰을 그대로 재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고려 말 불교계에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임제종의 건축공간을 재현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심원사 보광전과 같은 시기에 중창된 사찰임에도 심원사 보광전과 같이 선택적 수용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전면적 수용 내지는 재현이라고 봐야 할 정도의 중창을 시도한 것이다.

거의 모든 사찰에서 경사지를 등지고 주불전이 들어서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조건에서 임제종의 禪刹과 같이 중축이 강조되며 주불전 뒤편 공간에 上堂을 통해 법을 전하는 法堂과 入室面授의 공간인 方丈 등과 같은 공간은 쉽게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고려사찰은 임제종을 수용할 수는 있어도 그 공간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주어진 조건에서 절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렇게 중창을 시도한 배경은 중창 도중에 나용혜근의 귀양과 연이은 암살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sup>28)</sup> 회암사의 중창은 혼란한 불교계의 정화 의지가 바탕에 있었던 것으로 이를 반대하는 세력의 조직적 저항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회암사의 중창과 이어지는 원각왕사비의 건비는 고려의 전통적인 탑비가 아니라 당풍이라 하는 중국식 탑비를 세운 점도 회암사에 임제종 사찰을 재현하려는 의도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sup>29)</sup>

## 6. 14세기 여원 간 건축문화 교섭의 의미

14세기에 고려는 원 건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은 분명하고 반대로 고려의 영향을 원이 수용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성불사의 경우처럼 배치는 전통의 것을 유지하고 건축의 일부에서 원 건축의 영향을 수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경천사탑처럼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독특한 조형성에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융성한 탑이 세워진 것으로 보아 당시는 절대 억압적이며, 수동적인 창작활동을 전개하던 시기라고 볼 수 없다.

심원사 보광전의 경우 외형상 가장 적극적으로 원 건축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수

26) 류성룡·주남철, 앞의 논문, 2003

27) 윤은숙, 「고려의 북원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 중앙아시아연구, 15집, 2010; 고려는 명와 북원 사이에서 실리적 외교를 펼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1369년 단절했던 북원과의 외교관계를 1375년 재개하여 1377년까지 사신의 왕래가 확인된다.

28) 엄중섭, 「회암사 수조명분의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 23권, 4호, 2014

29) 박상준, 「고려 후기 탑비,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화」, 동양미술사학, 17호, 2015

## 14 논문

법과 표현에서 중국과는 현저하게 다른 고려 전통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특히 회암사의 중창은 단순히 수용하고자 하는 종파의 종교적 내용을 온전히 재현하고자 하였다기보다는 종교가 가지는 권위와 영향력까지 재현하고 싶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14세기에는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이 최고조에 다다랐다가 약해지는 전 과정이 포함되는 시기인데, 이러한 여원관계의 흐름 속에서도 성불사, 경천사, 심원사, 회암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듯이 각각 특징적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례마다 독특한 수용 양상을 보여주는 것은 여원관계가 고려의 입장에서 충분히 주체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적 관계는 억압적이었지만 이를 바탕으로 전개된 원 건축의 고려 수용은 절대 강제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원 건축을 단순히 한 왕조의 건축이라기보다는 선진문화라는 이해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이며 다양한 수용 양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다.

## 7. 결론

원간섭기의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4세기는 원을 중심으로 안정된 동북아 질서 속에 고려가 편입된 상황이었다. 간헐적으로 여원관계는 불편한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지만, 승려와 신진사류를 중심으로 중원의 앞선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던 시기였던 것이다.

이 시기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은 전면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기황후의 등극과 그에 따른 부원세력의 등장 속에 양국 간에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교류 시기가 있었다. 이후 공민왕의 반원자주정치에 이어지는 원명교체기의 혼란 와중에서 고려에 대한 원의 영향력이 약해졌지만, 고려의 중원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노력이 있었다.

이처럼 상반되는 정세 속에서도 구분 없이 적극적으로 원 건축을 수용하려 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수용자인 고려의 적극성 때문이다. 즉, 원을 통해 들어오는 중원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선진적이지 않았다면 이렇게 활발한 수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정세의 변화에 개의치 않는 적극적 수용, 왕조가 바뀌어 이후에도 도성건축에 원의 다포 건축을 사용한다든가, 왕실원찰인 원각사에 경천사탑과 당풍의 비를 세운다든가 하는 행동은 14세기 원 문화를 인식했던 고려의 태

도를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14세기는 간섭기임에도 기왕에 형성된 선진문화 수용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시기로, 수용하는 방법도 고려의 틀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1. 모리히라 마사히코, 「목은 이색의 두 가지 入元 루트」, 진단학보, 114집, 2012
2. 강호선, 「고려말 나옹혜근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3. 윤기엽, 「원간섭기 원황실의 원당이 된 고려사원」, 대동문화연구, 46집, 2004
4. 토니노 푸지오니, 「원대 기황후의 불교지원과 그 정치적인 의의」, 보조사상, 17집, 2002
5. 최연식, 「고려말 간화선 전통의 확립과정에 대한 검토」, 보조사상, 37집, 2012
6. 류성룡·주남철, 「고려시대 대공의 결구방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권, 6호, 2003
7. 황인규, 「고려시대 유생의 서재와 그 문화」, 한국교육사학, 28권, 2호, 2006
8. 이강한, 「공민왕 5년(1356) '반원개혁'의 재검토」, 대동문화연구, 65집, 2009
9. 이익주, 「1356년 공민왕 反元政治 再論」, 역사학보, 225집, 2015
10. 한지만, 「회암사지 日자형 건물지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9권, 2호, 2010
11. 한지만·이상해, 「회암사의 연혁과 정청·방장지에 관한 복원적 연구」, 건축역사연구, 17권, 6호, 2008
12. 염중섭, 「회암사 수조명분의 변화와 종교적 해법의 유사구조」, 건축역사연구, 23권, 4호, 2014
13. 한국문화재보존기술진흥협회, 『한국문화재보존고: 일정기자료집성 1』, 1992
14. 윤은숙, 「고려의 복원청호 사용과 동아시아 인식」, 중앙아시아연구, 15집, 2010
15. 박상준, 「고려후기 탑비, 전통양식의 계승과 변화」, 동양미술사학, 17호, 2015

접수(2016. 3. 16)

수정(1차: 2016. 8. 17, 2차: 2016. 8. 30)

게재확정(2016. 9. 3)